

##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에 나타난 혼종적 욕망과 언어권력

전 영 의\*

### 요약

본 논문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언어로 표상되어지는 인물들의 혼종적 욕망과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언어번역으로는 읽어내기 힘든 잉여적 부분마저도 읽어내는 데 필요한 문화번역읽기를 시도하였다. 텍스트에서는 인물들의 욕망이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들, 문화권력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되거나 좌절되었다. 기존 연구가 교포 작가, 한국계 작가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작가 이창래를 바라 보았다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 아시아계 작가라고 해서 작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상상력의 폭을 좁히는 것은 올바른 텍스트 번역읽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창래를 인종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작가 자신의 주장대로 '미국작가'로 바라보았을 때 텍스트의 인물들은 문화권력 안에서 주류가 되어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섭되어가는 동화주의자였다.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Kwang은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면에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철저한 동화주의자였다. 헨리는 미국의 엘리트교육을 받고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남겨진 한국의 DNA를 지우고 싶어 하고, 미국 사회 내에서 원어민 (Native Speaker)으로서 완벽한 발음과 회화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다. 결국 아내 릴리아의 곁으로 돌아와 소수인종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언어 권력을 행사하고, 아내로 상징되는 백인지배문화에 순응하는 헨

\* 지린 후아치아오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리의 모습을 통해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 자체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류 미국인이 소수민족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미국 사회에 정착한 헨리나 Kwang이야 말로 문화권력 안에서 자발적으로 굴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포섭되어가는 동화주의자였다. 미국에 대한 체제 순응적이고 백인사회에 의존하려는 태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접고 백인기득권 동조자로 안주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 내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주제어: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 문화번역, 혼종적 욕망, 언어권력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국화 번역과 외국화 번역의 경계에서
3. 타자언어 사용의 폭력성과 정체성의 문제들
4. 문화권력 안에서 자발적 포섭과 욕망의 좌절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다른 언어권이나 국가 간의 상호 문화성을 이해하고 학문적 담론을 비롯한 직·간접적 교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번역이다.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시작된 번역은 이제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벤야민은 번역을 '깨어진 화병'에 비유한

다. 1) 이는 원본을 깨뜨리지 않고는 번역이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작가는 문장을 쓸 때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자신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잠재적 혹은 내포적 의미를 포함하곤 한다.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내포적 의미까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적절한 혹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의미가 누락되거나 삭제, 혹은 다른 의미로 바뀌진다면 그 번역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언어의 의미가 일대일 대응으로 치환되지는 않으므로 언어를 보완하고 잉여적 부분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방법이 문화를 고려한 번역이다.<sup>2)</sup> 문화란 기존의 어떤 문화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접변과 혼합, 혼종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단순히 언어 번역만을 시도하거나 작가, 혹은 인물의 정체성을 기존의 고정관념 안에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텍스트를 번역한다면 오독을 하고 번역을 잘못 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벤야민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모방'하고 '그 의미에 동화하는 번역작업'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부정하면서 번역을 할 때 '언어적 경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sup>3)</sup> 번역 불가능 한 것을 잔여적 차이로 보는 벤야민의 입장은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의 의미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기표는 자신을 다른 기표에 이양함으로써 기의에 도달하려 하지만 두 기표의 의미는 완전히 합치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간극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번역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과정의 연속 안에서 언어의 의미는 형성되고 다

1)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Glasgow: Fontana/Collins, 1982, pp.69-82

2) 필자는 이러한 번역을 앞으로 '문화번역'이라고 명명하겠다.

3) 번역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문의 표현방식을 번역 언어 속에서 체화해야 한다.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257면.

른 언어로 변형된다.<sup>4)</sup>

유럽에서 근대 자본주의 팽창의 일환으로 시작된 식민주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언어와 사상의 접촉 및 교류가 시작된 것도 사실이다. 서구적 근대성을 확산시키는 기제로서 번역은 서구의 식민지 국가들에게 ‘계몽’이라는 명목으로 불평등한 권력과 폭력<sup>5)</sup>을 행사한다. 그러나 탈식민 관점에서 번역이란 모방이 아닌 새로운 공간 즉 식민지 문화와 제국 문화가 섞이는 공간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기표에서 기표로의 번역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혼종적 문화공간을 번역하는 것으로 그 경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텍스트 번역에서 문화번역은 포스트식민과 포스트모던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이주성과 혼종성을 고려해야하는 새로운 번역행위이다.

한국계 미국작가인 이창래는 1.5세대 이민자로서 3세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으로서 자란 지식인 계층의 작가이다.<sup>6)</sup> 그의 초기작인 『영원한 이방인』<sup>7)</sup>에서 본인과 유사한 1.5세대 한국계 미국인 헨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데리다의 ‘기호학과 그라마톨로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데리다, 박성창 편역, 『자끄 데리다: 입장들-기호학과 그라마톨로지』, 도서출판 숲, 1992.

5) 로빈슨은 1. 양적인 면에서 피지배문화가 지배문화를 더 많이 번역, 2. 지배문화가 피지배문화를 신비화, 타자화하고 식민적 차이를 배제, 3. 지배문화는 지배에 필요하고 피지배인들이 지배문화에 순응할 수 있는 피지배문화 작품만 주로 번역, 4. 피지배문화의 작가는 성공을 위해 지배문화요구에 부응하는 텍스트만 주로 번역한다고 말한다.

Robinson, D.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6) 이창래(Changrae Lee)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3세 때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예일대 영문과와 오리건대 대학원(문예창작학과 석사)을 졸업하고 1995년 Native Speaker로 미국문단에 등단한 후 *Gesture Life*(1999), *Aloft*(2004), *The Surrendered*(2010), *On Such a Full Sea*(2014) 등 작품을 출간하였다.

리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혼종성과 정체성의 경계를 이야기한다. 처음 한국에서 번역될 때에는 작가가 한국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지만<sup>8)</sup> 두 번째 재번역 될 때에는 그가 미국인이라는 전제하에 새롭게 번역되었다. 물론 텍스트의 줄거리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자와 후자의 번역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그동안 『영원한 이방인』에 관한 연구가 언어 번역<sup>9)</sup>, 디아스포라<sup>10)</sup>, 정체성<sup>11)</sup>, 다문화주의<sup>12)</sup>, 정신분석학<sup>13)</sup>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7) Lee, Chang-Ra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1995.

\_\_\_\_\_. 정영목 역, 『영원한 이방인』, 나무와 숲, 2003.

8) 이창래, 현진만 역, 『네이티브 스피커』1-2, 미래사, 1995.

9) 이형진,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한글번역본 비교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36집, 2011년 가을호.

이상빈,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이창래의 *Native Speaker*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8권 4호.

위의 두 연구는 번역쌍이나 이탤릭체 사용, 비문법적 영어 등 언어적 측면에서의 문화번역을 연구하였기에 본 논문과는 차이를 갖는다. 번역쌍이란 ‘차용어와 소통중심번역의 쌍’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예를 들어 “Gaen-cha-nah” I mutter, chuckling, telling him it’s okay(p.266)라는 예문에서 “Gaen-cha-nah”와 “okay”를 번역쌍으로 텍스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거나 병렬식 독립절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 아버지가 “Hen-ry” 라고 부를 때와 “Byong-ho” 라고 부를 때 언어와 태도가 달라지는 점을 작가가 이탤릭체 사용 유무를 통해 구분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은 언어적 측면의 문화번역 태도이다.

박성원, 신동일,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분석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성 연구-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이중언어학 54호, 2014.

10) 이선주, 『미국이주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소설, 15권 1호, 2008.

차민영, 『이창래의 『원어민』과 토니 모리슨의 『재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상상』, 현대영어영문학 53권 3호, 2014.

11) 박수정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종과 언어의 관계』, 효원영어영문학 22집, 2004.

장경렬, 『정체성의 위기, 언어의 안과 밖에서: 이창래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읽기』, 문학판 1권, 열림원, 2002.

정혜옥, 『한국계 미국소설에서 민족의 번역: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9권 4호, 73-100면.

12) 김미영, 『이창래 소설에 재현된 한국여성과 한국문화』, 『어문연구』, 34권 1호,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작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텍스트가 차이를 가지고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화번역읽기’는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로 표상되어지는 인물들의 혼종적 욕망과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자국화 번역과 외국화 번역의 경계에서

영미권에서 컬처(culture)라고 일컫는 문화는 19세기에 문명(civilization)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이때 문화 혹은 문명이 ‘서구, 제국주의적, 남성주의적, 기독교’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부정태(negativity)는 ‘서구를 제외한, 동양의, 아프리카의, 미개한, 원시적인, 야만의, 여성적인’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간의 다양한 삶과 그 방식을 문화라고 하기에 이런 이분법적이고 구조주의적 구분을 더 이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를 이해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일차적인 행위일 것이다.

2006.

정정호, 『주변부 타자의 정체성 탐색의 가능성』, 서평문화 52집, 2003.

조규익, 『바벨탑에서 자아찾기』, 어문연구 34권 2호, 2006.

지봉근, 『이창래의 원어민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문화적 차이와 잡종성』, 비교문학 33집, 한양대 인문학연구소, 2003.

- 13) 고부웅, 『이창래의 『원어민』: 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권, 2002.

번역은 크게 무엇을 번역하는가(what to translate)와 어떻게 번역하는가(how to translate)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 첫째, 등가성의 문제, 둘째, 번역의 가능성 문제, 셋째, 정체성의 문제, 넷째, 번역의 타입 혹은 형태의 문제, 다섯째, 시간의 흐름 혹은 역사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를 고려한 번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 번역의 결과물에는 얻고 잃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sup>14)</sup> 최근에는 원 텍스트에 관한 오역의 문제를 들어 재번역 출판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 간에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등가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본다.

번역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읽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원본(번역해야 할 대상 원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 유무이다. 먼저 독자들을 고려한 자연스럽고 유창한 번역을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s)이라 한다.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가독성을 위해 원본을 ‘번역되는 언어와 문화에 보다 가깝게’ 해석하는 번역이다. 가독성을 중시하다보니 작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나 어휘가 삭제되거나 변형되어 원본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다. 반면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에 충실한 직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외국화 번역(foreignizing translations)이라 하는데 원본의 충실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14) 바스넷 맥과이어는 번역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1.Equivalence, 2.Relation of Language & Culture, 3.Translatability or Untranslativity, 4.Identity of Translation Studies, 5.Type of Translation, 6.History of Translation 등을 언급하고 있다.

Susan Bassnett-McGuire,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Methuen, 1980. 참조할 것.

상당한 지지를 받은 번역방법이다. 그러나 직역 중심의 번역은 독자들이 원본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 각주나 주석 없이는 읽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번역되는 텍스트가 해당국가의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가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번역자들이 번역과정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자국어 번역과 외국어 번역의 경계이다. 원본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독자들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고 번역된 텍스트 자체도 비문법적이지 않아 하나의 문학 텍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경계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어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문화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 혹은 치환 과정이 아니라 문화의 해석에 더 가깝다. 원본에 나타나는 타문화의 모습을 번역자가 자문화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침투와 협상을 통해 두 문화 모두 혼종된 형태로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인식론적 번역 방법이다. 문화번역이 언어와 문화의 재배치, 혹은 탈중심을 도모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며, 경험적인 이데올로기 행위라고 본다면 번역문학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외국문학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주관적으로 실현하고 원작의 특수성을 확장시켜 자기작품의 고유성을 모색한 경우, 둘째, 외국작품을 차용했다고 먼저 밝히고 다시쓰거나 이를 가장하여 번역자가 독창적 글쓰기를 한 경우, 셋째, 독자들이 번역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번역의 과정과 특징을 추측하고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간의 사상적 교류흔적과 가치를 찾아내는 경우이다.<sup>15)</sup> 첫 번째 관점<sup>16)</sup>과 두 번째 관점<sup>17)</sup>은 패러디나 모티브 차용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재룡, 「번역문학이라는 불가능성의 가능성-개념 정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기획발표 논문, 2015, 8면.



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관점이 문화번역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민 1.5세대들을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들을 보면 이들은 자국과 타국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혼종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나 과정 안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협상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변형을 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언어번역으로는 찾기 힘든 이런 공간들을 우리는 문화번역을 통해 찾아낼 수 있기에 문화번역은 기존의 번역방법과 함께 연구되고 행해져야 한다. 미국이민 1.5세대이자 미국 사회의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한국계 미국 지식인 이창래의 첫 작품 『영원한 이방인』에서는 주인공 헨리를 통해 작가의 혼종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문화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는데 적절한 텍스트이다.

### 3. 타자언어 사용의 폭력성과 정체성의 문제들

한국계 미국인 헨리는 미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영국계 미국인 아내 릴리아와 결혼한 미국인이지만 동양인 피부와 외모로 미국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늘 고민한다. 원어민(Native Speaker)으로서 정확하고 훌륭한 영어발음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발음이 혹시나 어눌하게 들리거나 틀릴까봐 신경을 쓴다. 미국인이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아시아인으로 인식되어왔던 그는 완벽한 미국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자신보다 훨씬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 아버지에게 ‘영어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인 헨리는 스스로

참조할 것.

16) 위의 논문, 21-22면.

17) 위의 논문, 25-32면.

인종적 타자와 언어적 타자의 경계에 머물며 나아가지 못한다. 미국 국적으로 가지고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이 지닌 한국인 유전자를 지우고 싶어 하는 헨리의 모습에서 이창래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다.

3세 때 의사인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이창래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미국문단에 등단한 작가이다. 평소 한국계 혹은 한국작가가 아닌 미국작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초기 한국 비평가들이 만들어놓은 한국인 작가, 교포 소설가, 교포작가의 이미지<sup>18)</sup>를 거부하고 미국작가로 보이주기를 요구한다. 흔히 교포문학들이 주제로 삼은 탈식민성이라던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같은 진부한 소재는 던져버리고, 그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1.5세대 이민자들을 바라보고 다룬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 안에서 미국인이면서도 인종적, 언어적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민, 모국어와 자국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가는 방법 등은 분명히 드러난다.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의 주체성(자아 주체성) 문제와 누군가와 동일시 되는냐(타인동일성) 문제를 내포한다. 자주적이고 독립적 생존을 강조하는 주체성은 타자(Other)가 전제되었을 때만이 생길 수 있는 개념으로 차별화된 주체성은 독자적 성격을 가진 내면적 현상이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Native Speaker*는 현진만(1995)과 정영목(2003)에 의해 두 번 번역 출간되었는데 주인공 헨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번역에 미세한 차이를 갖는다.

18) 권택영(『웅시로서의 『제스처 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학』, 48집, 2002, 243-261면) 등 초기 이창래 연구자들은 작가에게 한국인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덧씌워 그가 탈식민성, 정체성 회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창래가 한국계 미국인 작가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My father, a Confucian of high order, would commend me for finally honoring that which is wholly evident. For him, all of life was a rigid matter of family. I know all about that fine and terrible ordering, how it variously casts you as the golden child, the slave-son daughter, the venerable father, the long-dead god. (pp.6-7)

1. 상당한 지체 높은 양반 집안에서 자란 아버지는 늘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고 가르치곤 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가문이었다. 나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것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그 질서는 당신을 옥동자로도 만들고, 하인으로도 만들며, 지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만들기도 했다. (현, 1권 16면)

2. 높은 수준의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마침내 아주 자명한 것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나를 칭찬할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반드시 가족 문제였다. 나는 그 섬세하고 무시무시한 서열에 대해 그것이 사람들을 황금같이 귀중한 자식, 노예와 같은 아들이나 딸, 존경받는 아버지, 오래 전에 죽은 신으로 다양하게 등장시키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 27면)

여기서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할 수 있다. ‘My father, a Confucian of high order’를 현진만은 ‘상당히 지체 높은 양반 집안에서 자란 아버지’라고, 정영목은 ‘높은 수준의 나의 아버지라면’이라고 다르게 번역한다. 또 ‘the golden child’를 전자는 ‘옥동자’로 후자는 ‘황금같이 귀중한 자식으로 번역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진만은 독자를 중심으로 의역을 하였으면 정영목은 원어에 충실한 직역을 하였다. 필자가 보았을 때 ‘My father, a Confucian of high order’의 정확한 번역은 ‘수준 높은 유학자인(유학자 같은) 나

의 아버지가 정확하다. 전자나 후자 모두 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인물에 대한 번역자 나름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후자는 독자들이 유학, 유학자의 의미를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confucian의 의미를 삭제해 버렸다. 'the golden child'의 번역은 정영목의 것이 더 정확하다. 현진만은 헨리의 정체성보다는 한국인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인 '옥동자'를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는 확장되거나 미세하게 변하였다. 이렇게 번역자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비속어 부분을 살펴보자

He started speaking, but in English. Sometimes, when he wanted to hide or not outright, he chose to speak in English ... Once when he was having some money problems with a store, he started berating her with some awful streams of nonsensical street talk, shouting "my hot mama shit ass tight cock sucka", and "slant-eye spic-and-span motha-fucka" (p.63)

1. 아버지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아버지는 무슨 일을 숨기려고 하거나 털어놓고 할 이야기가 못 되는 경우에는 영어로 말했다. ... 한 번은 가게로 인해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아주 상스러운 말로 어머니를 심하게 꾸짖기 시작했다. "니기미 쓰별 엇같으니라구. 그 눈이 찌진 동양 놈들, 스페인 새끼들, 엇이나 먹으라지" (현, 1권, 99면)

2. 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 영어였다. 가끔 아버지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영어로 말을 했다. ... 한번은 가게에서 어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의 욕설을 끔찍하게 내뱉으며 어머니를 호되게 나무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마이 핫 마마 섯

애스 타이트 각 서카(my hot mama shit ass tight cock sucka: 성에 관련된 욕설-웁긴이)”나 “슬랜트-아이 스피크-앤-스팬 마다-퍼카(slant-eye spic-and-span motha-fucka: 인종[동양인+남미인]과 관련된 욕을 받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웁긴이)”니 하는 소리를 질러 댔는데 ... (정, 117면)

자국화 번역을 시도하는 현진만은 한국인들이 생소한 미국욕을 들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한국어라면 아마 이러한 욕설일 것이다.”라는 작가의 추측이 들어간 번역을 하였다. 바로 번역자의 문화적 개입이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화 번역을 시도한 정영목은 철저하게 발음나는 대로 옮기고 번역자의 각주만 달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사적 상황 안에서 들어가 생각해 보면 더욱 쉽게 답이 나온다. 헨리는 1.5세대이며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유창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어가 더 편안하다. 생활 속에서도 미국인들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들었을 때 현진만처럼 한국욕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들렸을 것이다. 이는 번역자가 문화적 동질성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여 자신의 문화적 개입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이를 낯설게 읽음으로써 미국 이민 1.5세대로서의 헨리의 정체성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영목의 번역본을 가지고 텍스트를 분석하다보면 인물들의 정체성을 독자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sup>19)</sup> 이창래가 3세 때 이민을 가 한국어 욕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현진만이 번역한 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영목은 이창래의 자라온 환경을 고려했을 때, 또 텍스트 속 인물인 헨리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독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외국화 번역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

19)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 번역문을 인용할 때에는 정영목 번역, 『영원한 이방인』, 앞의 책을 인용할 것이다.

달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작가의 정체성을 한국인이거나 한국을 마음속에 담은 교포로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식 교육을 받은 작가로, 한국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작가로 생각하고 원문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읽혀진다고 하겠다. 작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지만 한국보다는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고 볼 때<sup>20)</sup> 텍스트 곳곳에 나타나는 언어의 폭력성, 혼종성, 정체성 등은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공대 석사학위까지 소지한 헨리의 아버지는 엘리트임에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야채장사를 한다. 미국 내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백인이웃에게도 친절한 미소와 여유로움을 보인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점잖고 성실하며 상냥한 야채가게 주인이지만 자신이 고용하는 다른 유색인종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어눌하여 자기주장을 펼칠 수 없는 고용인들에게는 언어적 폭력과 차별을 일삼는다.<sup>21)</sup>

20) 이창래는 자신을 한국계, 혹은 한국인 작가로 보는 시선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작가로 미국문단에 인정받기를 바란다. 등단 후 펜/헤밍웨이 문학상을 비롯, 반스앤드노블 신인작가상, 아메리칸 북어워드, QPB 뉴비전 문학상, 오리건 북어워드 등 주요 문학상을 석권한 것을 볼 때 그의 이런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Native Speaker*가 번역되어 들어온 1995년부터 (현진만 역, 『네이티브 스피커』, 앞의 책) 정영목의 번역본이 출간된 2003년까지 초창기 연구자들은 그를 ‘한국계’ 또는 ‘한국인’이라는 전제하에 연구하였다. 이때 주제가 거의 탈식민성, 식민성 극복, 정체성 확립 등으로 나타났고 현재 연구에서도 이런 연구결과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주장처럼 그런 시선들을 거두고 텍스트를 바라보면 기존의 연구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작가 스스로도 데이브 김(Dave Kim)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소수인종의 세계와 규칙들에 따라 평가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이창래와 카즈오 이쉬구로의 소설들 속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와 간극들』, 동서비교문학저널 29호, 2013, 37-60면을 참조할 것.

21) 아버지는 결국 흑인들을 내보내고 푸에르토리코인이나 페루인들을 썼다. 아버지는 ‘스페인계’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영어를

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화가 나거나 불리할 때 영어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함으로써 그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헨리가 아버지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적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헨리를 ‘공깃돌 입’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내 뉘인 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비틀리는 바람에 잡음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정, 388면) 정확한 발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닌 어린 헨리는 정규교육을 받고 원어민 (Native Speaker)으로서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발음을 신경쓰는 미국인 아닌 미국인이었고, 자신보다 영어를 못하고 발음이 나쁜 아버지 앞에서는 언어권력자로서 그를 비웃으며 희열을 누린다.

한국어에는 L발음과 R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중략) 내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운 뒤에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며 하던 말이 기억난다. 네 눈이 온통 끌렸구나(led, 빨강다는 뜻의 red를 잘못 발음한 것-옴긴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으로 가서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젖혔다. (정, 387면)

헨리에게 원어민(Native Speaker)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백인들이 사용하는 표준영어이다. 원어민성(Nativelikeness)에 속박된 감정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강압적인 폭력을 겪으면서 동시에 행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영미문화권에서 문화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영어에 취약한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인들을 열등한 하부계층으로 인식한다. 심리적 경계선 밖에 그들을 놓아둠으로써 철저하게 타자화하고 이들을 스트레오 타입으로 정형화

---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일종의 경험 법칙이 되었다. 즉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땅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공짜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정, 313면)

한다. 이들의 우월의식은 신체적 외연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권력에 근거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들은 언어적, 외모적 차이를 이유로 아시아인들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한다. ‘수동적, 복종적, 미개한, 더러운, 멍청한’ 등 온갖 부정적 어휘로 이들을 정형화시키며 유색인종, 아시아인들에 대한 적극적 차별화와 타자화를 시행한다. 이런 언어적 폭력은 아들 미트의 죽음에서도 드러난다.

미트는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 헨리와 영국계 미국인 어머니 릴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외모는 거의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미국인으로 자라난 헨리는 동양적 외모로 인해 인종적으로 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완벽한 영어발음을 구사하면서도 자신의 발음이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언어적 타자였다. 자신의 아이에게만큼은 동양인의 유전자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코카서스인인 릴리아와 결혼했고 아이를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어나 한국문화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헨리는 아이에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지만 노란 피부와 검은머리, 찢어진 눈을 가진 미트는 다른 미국 백인 아이들에게 여전히 타자였고 미국인이 될 수 없었다. 백인 아이들은 mitt를 mutt(비속어, 잡종 개, 바보라는 뜻)라 부르며 놀리고 은연중에 차별을 하였다. ‘중국놈, 일본놈, 동양놈, 황인종, 혼혈아, 바보, 잡종’으로 불리다가 결국 놀이도 중 백인 소년들 밑에 깔려 질식사하고 만다. 이런 언어적 폭력은 다민족, 다인종주의를 인정하는 미국사회가 갖는 폭력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겉으로 보기에만 소수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철저하게 소수 아시아 이민자들을 타자로 인식하는 백인 중심주의 사회의 민낯이다. 원래 본토인들이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내쫓고 백인 이주민이었던 이들이 갖는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차별은 모순적이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였다.

존재의 근원을 규정하고 자아를 개념화하는데 언어는 필수적 요



소이다. ‘내가 누구인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느냐’가 전제된다. 정체성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언어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기제라 할 수 있다.

영어라는 기표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미국인이 될 수 없었고, 완벽한 발음을 하는 헨리는 영어라는 기표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언어기표를 의식하고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주류 사회로 나아갈 수 없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스파이라는 직업을 택하고 아시아계 미국 중산층 지식인, 정치인 등의 비리를 캐고 다니는 헨리는 미국사회의 주변부에서만 머물러 있다. 아들 미트는 완벽한 미국인 원어민(Native Speaker)이었으면서도 역시 동양적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고 죽게 된다. 철저하게 미국인이 되고 싶었지만 스스로 미국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헨리는 한국적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백인 미국사회에도 편입되지 못한 혼성적 상태, 미국인의 주변부에 위치한 혼성적 정체성을 가진 텅 빈 기표일 뿐이다.

#### 4. 문화권력 안에서 자발적 포섭과 욕망의 좌절

『영원한 이방인』에서 문체적 인물은 단연 Jhon Kwang<sup>22)</sup>이다.

22) Kwang은 강, 광, 광, 광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존 Kwang이라는 인물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강씨일 확률이 크다. 또 ‘강하다’(強)라는 음에서 덧붙인 Kwang의 이미지는 실제로도 미국 유색인종 이민자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차기 미국 시장을 노리는 그는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물론 Kwang은 ‘광’이라는 발음을 영어로 적은 것이기에 강씨가 아닌 ‘광씨’일까 생각도 들지만 한국에서는 광씨가 없다. 또 영미권에서는 ‘광’이나 ‘광’으로도 발음되면서 동남아적 느낌이 나는 성으로 그 이미지가 확 바뀐다. 연구자들은 Jhon Kwang의 성을 ‘존

한국계 미국인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는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정치인으로 한국인에 대한 헨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헨리가 볼 때 그는 아름답고 정확한 영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평화주의자’(정, 93면) ‘야심 있는 소수민족 출신의 정치가이자 대중을 사랑하는 사람’(정, 139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정, 139면)이다.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상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헨리는 자신이 관찰하는 Kwang을 볼 때마다 그의 유창하고 훌륭한 발음에 탄복하고 유색인종임에도 미국사회의 주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버지처럼 존경하게 된다. 헨리가 지금까지 부정하고 숨기려고 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Kwang으로 인해 오히려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도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된다. 뉴욕 시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Kwang은 유색인민자들의 단합과 정착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경쟁상대이던 다른 당 후보가 글리머 앤 컴퍼니(Glimmer & Company)의 스파이 에두아르도에게 그를 조사할 것을 의뢰한다. 한국의 ‘계’문화를 알지 못하는 미국 사회에서 Kwang은 사설은행을 만들고 탈세를 통한 불법이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지게 된다. 그를 스파이하던 에두아르도까지 죽게 되자 Kwang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진취적이고 영웅적이던 모습이 아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순간 무너지고 만다.

그의 몰락의 징표들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온다. 정치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목소리가 갈라지고 외국어 억양이 섞이며(정, 294면), 아내에게 때로는 애인 세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정, 309면) 음주운전으로 한국계 매춘부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

---

강, 존 광, 존 팡, 존 쾡'이라고 혼용해서 쓰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의 실수이긴, Jhon Kwang이라는 인물을 한국계가 아닌 유색인종을 대표하는 인물로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Kwang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하는 등(정, 322면) 극단적인 부정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치인이 아니라 나약하고 실패한 동양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인 가게에서 흑인이 '자신이 사용했던 시계를 교환해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행패를 부릴 때, Kwang은 한국인 주인을 달래며 교환은 물론 흑인 남자의 아내를 위한 귀걸이까지 선물로 주게끔 했다.(정, 278-280면) 한국인 주인이 13달러 99센트짜리 시계 값과 5달러짜리 은 귀걸이 값을 벌기 위해서 드는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 많이 사는 흑인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차기 뉴욕시장으로서 입지를 굳히려고만 노력한다. 이는 소수인종 계도 내에서 분쟁을 무마하고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인을 보호하려는 듯하지만 이 역시 소수인종 출신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 뿐이다.

Kwang이 만든 '계'가 한국계 이민자 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이민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시도라 본다면 '계'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한국식 '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탈세를 위한 사설은행이라고 본다. 한국의 문화개념으로 볼 때 국세청의 제지는 소수이주민들의 합법적 정착을 위한 자본조차 모으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고 이는 아메리칸 드림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사회로 진입하려는 소수인종 이민자들과 이들의 합법적 진입을 거부하는 미국사회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소수인종 이민자로 이루어진 계원들 중 대다수가 알고 보니 불법이민자였다는 점에서 '계'의 불법성은 더욱 강하게 인식된다.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었다고 믿는 백인 남성들은 Kwang을 "밀입국 주선자"라 부르며 집 앞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고, Kwang은 미국사회에서 주류가 되고자 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당한다. 미국사회에서 동양인, 유색인종이 갖

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어 버린 그가 한 때 보여주었던 행위들은 주류 백인사회에서 미국사회의 차별과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탈식민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동포를 자기 기반으로 삼아 성공하고 백인 주류문화에서 그들처럼 권력을 누리하고자 했던 주류문화 동화전략이었던 것이다. Kwang의 도덕적 타락은 한국 전통 문화(동양의 문화)가 다른 문화(서구의 문화)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며 그의 몰락은 여전히 미국 백인사회가 동양인, 유색인종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 미트가 죽고, Kwang이 추방당한 후 헨리는 스파이를 그만두고 별거 중이던 아내 릴리아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 자신의 영어 발음에만 귀를 기울이던 헨리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기중심적 편견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급작스런 헨리의 변화는 독자들이 납득하기 힘들지만, 시종일관 긍정적이면서 소수인종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릴리아 곁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독자들은 억지스러운 이해를 할 수는 있다. 그녀로 인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헨리의 일련의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사실 릴리아와 헨리의 관계는 오리엔탈리즘이 만들어놓은 환상이다. 릴리아는 영국계 미국인으로서 완벽한 영어발음을 구사하는 백인 코카서스인이다. 매주 소수인종 이민자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소한 언행이 한국계 미국인인 헨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조심한다. 아버지와 헨리조차 존재를 무시하는 '아줌마'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한다. 그녀의 이런 행동들은 서구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우아하고 고상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젠틀함은 오리엔탈리즘에서 서구와 동양을 가를 때 서구를 상징하는 플러스 기표이다. 반면 헨리는 마이너스 기표로 가득

찬 인물이다. 비(非)백인 즉 아시아인이며 엘리트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지만 아내 릴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표들의 부정적 요소들로 가득 차있다. 항상 자신의 발음에 신경을 쓰고 영어를 자신보다 잘 하지 못하는 인물(아버지, 아줌마, 다른 소수 인종)들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소위 원어민 콤플렉스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던 그가 릴리아에게 돌아와 예전과는 다르게 소수인종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 역시 변화된 헨리의 모습에 재결함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헨리의 태도이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원어민(Non-Native Speaker)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 민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듯한 모습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긍정적 변화처럼 비춰진다.<sup>23)</sup> 소수인종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릴리아를 도와 영어수업의 보조역할 (영어괴물)을 맡으면서 헨리는 과거와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하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어려운 이름들을 호명하는 것을 통해 나는 릴리아가 수십 개의 멋진 언어를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정, 349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으면 영어괴물이 되어 아이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면서 1.5세대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한 헨리의 자세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스럽다. 미국인이면서 완벽한 영어발음을 하는 헨리이지만 그의 동양적 외모는 언제나 그를 타자화한다. 그가 가면을 써 동양적 표지를 감출 때에만 완벽한 원어민(Native Speaker)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름을 읽어야할지도 모르는 소수인종 이민자 아이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때에만 헨리는 비로소 진정한 원어민(Native Speaker)으로서 ‘권위’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3) 기존의 연구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Native Speaker*의 탈식민성을 주장한다.

평소 원어민이 비원어민에게 없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헨리는 '영어괴물'이 되어서야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듯 여기고 만족해한다. 이때 영어수업의 장소는 하나의 언어권력을 행사하는 장으로 바뀐다. 이런 점에서 헨리의 행위는 백인권력의 조력자로서 행위이며 이들의 권력 아래서 새로운 보호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위문화의 권력 강화를 위해 조력자가 된 헨리의 행위는 지배문화에 대한 적극적 순응이며 이를 감추기 위한 위장전략이었다. 가면을 쓰고 발음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영어괴물 헨리는 릴리아로 표상되는 지배문화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종속되어가는 피지배자일 뿐이다.

##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텍스트로 하여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들, 문화권력 안에서 인물들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성취되거나 좌절되는지 문화번역읽기를 통해 밝혀보았다. 그동안 『영원한 이방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교포 작가, 한국계 작가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작가 이창래를 바라보았다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 아시아계 작가라고 해서 작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상상력의 폭을 좁히는 것은 올바른 텍스트 번역읽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창래를 인종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작가 자신의 주장대로 '미국작가'로 바라보았을 때 텍스트의 인물들은 문화권력 안에서 주류가 되어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섭되어가는 동화주의자였다. 특히 이런 분석에는 외국화 번역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Kwang은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면에는 한국계 이

민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철저한 동화주의자였다. 헨리는 미국의 엘리트교육을 받고 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남겨진 한국의 DNA를 지우고 싶어 하고, 미국 사회 내에서 원어민 (Native Speaker)으로서 완벽한 발음과 회화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다. 결국 아내 릴리아의 곁으로 돌아와 소수인종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언어 권력을 행사하고, 아내로 상징되는 백인지배 문화에 순응하는 헨리의 모습을 통해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계, 한국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으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류 미국인이 소수민족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미국사회에 정착한 헨리나 Kwang이야 말로 문화권력 안에서 자발적으로 굴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포섭되어가는 동화주의자였다. 미국에 대한 체제 순응적이고 백인사회에 의존하려는 태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접고 백인기득권 동조자로 안주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 내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Lee, Chang-Ra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1995.

이창래, 현진만 역, 『네이티브 스피커』 1-2, 미래사, 1995.

이창래, 정영목 역, 『영원한 이방인』, 나무와 숲, 2003.

2. 단행본 및 논문

고부응, 「이창래의 『원어민』: 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48권, 2002. 619-638면.

권택영, 「응시로서의 『제스처 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학*』, 48집, 2002, 243-261면.

김대중, 「이창래와 카즈오 이쉬구로의 소설들 속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와 간극들」, *동서비교문학저널* 29호, 2013. 37-60면.

데리다, 박성창 편역, 『자끄 데리다: 입장들-기호학과 그라마톨로지』, 도서출판 숲, 1992.

박성원, 신동일,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분석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성 연구-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이중언어학* 54호, 2014. 123-156면.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이상빈,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이창래의 *Native Speaker*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8권 4호. 119-140면.

이선주, 「미국이주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소설*, 15권 1호, 2008. 95-119면.

이형진,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한글번역본 비교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36집, 2011년 가을호. 131-165면.

장경렬, 「정체성의 위기, 언어의 안과 밖에서: 이창래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읽기」, *문학관* 1권, 열림원, 2002.

정정호, 「주변부 타자의 정체성 탐색의 가능성」, *서평문화* 52집, 2003.

정혜옥, 「한국계 미국소설에서 민족의 번역: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9권 4호, 73-100면.

조규익, 『바벨탑에서 자이찾기』, 어문연구 34권 2호, 2006. 161-182면.

조재룡, 『번역문학이라는 불가능성의 가능성-개념 정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기획 김미영, 『이창래 소설에 재현된 한국어 성과 한국문화』, 『어문연구』, 34권 1호, 2006. 7-51면.

지봉근, 『이창래의 원어민에 나타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문화적 차이와 잡종성』, 비교문학 33집, 한양대 인문학연구소, 2003. 발표 논문, 2015. 303-322면.

차민영, 『이창래의 『원어민』과 토니 모리슨의 『재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상상』, 현대영어영문학 53권 3호, 2014. 267-287면.

Benjamin,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Glasgow: Fontana/Collins, 1982, pp.69-82

Robinson, D.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Susan Bassnett-McGuire,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Methuen, 1980.



<Abstract>

## The Hybrid Culture and Language Power about Lee, Chang-Rae's *Native Speaker*

Chon, Young-Eui

The essay's object is 'Reading hybrid's desire and power's relationship of characters' Their desire are presented by language. but I could not read some culture parts by language translation so I tried to use 'culture translation reading' Character's desires had language and identity's problems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It was fulfilled or not by various methods. I was inconvenienced to preceding study about ChangRae Lee's works. Preceding Scholars have a perspective that is 'ChangRae Lee is a Korean-American author' It was not right translation reading to considered work's boundary and narrow imagination although he is a Korean-American author. but he continued to assert that he is American, so when I see him as a American author, I can read that characters are voluntary assimilationist. they try to the majority in culture's power. Kwang is a presented politician of ethnic minorities in major American white color society. But he is a rugged assimilationist, he achieved his ambition although Korean-American immigrant sacrifice. Henry is a Korean-American who married American wife, studied American elite education, but he try to remove his Korean DNA, want to be perfect American as *Native Speaker*. and he want to get power although use perfect pronunciation and conversation. So he came back



his wife, Lilia who is symbol of white control class and culture and taught english to ethnic minorities' children. I could find ChangRae Lee's identity that is American through Henry. Henry and Kwang are assimilationist for get their desire and success in culture power. they imitated american society that exploited and used ethnic minorities, they have depended, system accepted attitude for white color control society. I can read 'Power Relationship' that is in the ethnic races

Key words: 'Lee, Chang-Rae', *Native Speaker*, Culture Translation, Hybrid Culture, Language Power

투 고 일 : 2017년 7월 29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1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